

무안군, 양파가격 하락 극복 위해 전 직원이 나섰다

양파 5t 자발적 구매…지역 농가 응원 전 공직자 한마음 동참

맛풀무안몰 양파 30% 할인 기획전으로 농가 돋기 총력

무안군은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돋기 위해 무안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쇼핑몰 '맛풀무안몰'에서 양파 30% 할인 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섰다.

무안군청 전 직원이 참여해 양파 5kg 총 1,000t, 5t 규모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며 양파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오늘부터 무안군 공식 쇼핑몰 '맛풀무안몰'

예선 양파 구매 시 30% 1인당 5t 할인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지역 우수한 농산물의 가치를 공직사회에서 먼저 알아보고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2025. 5. 30.(금) 무안군

신안군, 오는 7~8일 '섬 밴댕이 축제'…비빔밥·시식회에 공연까지

슬로시티 증도에서 개최

신안군은 깨끗한 바다와 광활한 갯벌, 천혜의 모래해변이 어우러진 슬로시티 증도에서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제15회 섬 밴댕이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오뉴월 밴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6월은 밴댕이의 제철이다. 지방이 풍부하고 살

이 부드러워 회,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밴댕이가 가진 칼슘·철·분·불포화지방산은 성인병 예방과 골다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축제는 증도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밴댕이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회와 지역 출신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준비됐다.

행사 기간에는 둘째 날, 카누, 오리배 체험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오감 만족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가 열리는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지역(2007년 12월)이다. 국내 최초의 갯벌도립공원(2012년 8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록 지역 등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대표적 청정 생태관광지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소금박물관, 짱뚱어 다리, 한반도 해송 숲 등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밴댕이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실속형 축제로, 제철 수산물의 맛과 신안군만의 생태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미식가들에게 만족스러운 여름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영광군,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구축 시범사업 모집

영광군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모델 확립과 마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 내 유류부지에 2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발전수익을 마을 기금 등으로 활용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 남해군의 마을 태양광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설치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지난 19일에는 참여 마을 모집 공고를 실시했으며, 향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마을 조합 구성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6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은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재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박효종 기자

영암군, 생태관광 활성화 공직자 특강

최덕립 순천만정원박람회 총감독, 생태복원·공무원 혁신 자세 등 주제 강연



영암군이 27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공직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특강'을 개최했다.

최 강사는 영암군 공직자들에게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배경과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생태복원과 도시브랜드 강화의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전봇대를 제거

하고, 에코벨트를 조성한 일 등을 자연과 공존을 실현한 정책 혁신 대표 사례로 설명하며, 영암군도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정원도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울리 영암군 관광자산인 국립공원 월출산, 왕인박사축제, 기찬랜드, 달맞이공원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글뚝 없는 산업인 관광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라며, 생태관광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암군 축제에 대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주민과 연계된 구조, 감성과 체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주문하며, 공직자들이 자기 혁신과 지역 혁신의 주체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는 주민과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라며 책임감과 자제력, 자기 계발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직자들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생태관광 요소를 어떻게 담아낼지 계속해서 고민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공직자 역량을 잇는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청렴문화 조성 위한 청렴 지킴이단 간담회 실시

함평군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자율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전날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2025년 함평군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 내 자율적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서별 1명씩 총 29명(실과소 20, 읍면 9)을 선정해 '청렴 지킴이단'을 구성했다. 단원들은 각 부서에서 청렴 멘토로서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부패 예방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간담회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주요 시책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별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 공유와 부서별 협조 사항 전달도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서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해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실천 중심의 정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충훈 기자

목포시티투어, 명칭·노선 새단장…이달부터 새 출발

목포시가 오는 6월부터 '목포시티투어'의 코스 명칭과 운영 노선을 일부 개편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개편은 목포만의 정체성과 감성을 반영해 더욱 흥미롭고 차별화된 맞춤형 투어 상품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의 '주간 시티투어'는 '목포랑 시티투어'로, '야경 시티투어'는 '별빛 물결 시티투어'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목포랑'은 '목포와 함께'라는 의미를 담아 친근하고 따뜻한 정서를 부각하고, '별빛 물결'은 목포 바다의 야경과 낭만적인 감성을 한축으로 표현해 시티투어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1코스인 '목포랑 시티투어'는 KTX 호남선 종착역인 목포역에서 시작해 ▲영화 1987 활영지인 연희네 슈퍼 ▲드라마 헤델렐루나 활영지인 근대역사관 ▲스릴 넘치는 바다 위 스카이워크 ▲세계적인 준대성전으로 인증받은 카톨릭성지 등 목포만의 역사와 문화, 체험 요소를 아우른 이색적인 코스로 운영된다.

제2코스 '별빛 물결 시티투어'는 목포대교, 춤추는 바다분수 등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낭만적인 밤바다와 감성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코스가 될 전망이다.

시티투어 예약은 목포시 문화관광 누리집 또는 전화(061-245-1814)를 통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성인 6,000원,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은 3,000원이다.

서부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에너지를
세계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